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신학박사 조 덕운

[누가복음 13:6-9]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7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삼 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8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9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Longsuffering)에 대하여 몇가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주 목적이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보기 기대하는 목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3 년동안 거름을 주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 베어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은 기한을 두고 적용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마치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한그루를 매말라 죽게 하심으로써 이 비유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3 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 맺기를 희망하셨지만, 3 년 사역이 다 끝나가는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 무화과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간 보이신 오래 참으심의 기한이 다 되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은 서기 70 년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전면적 파괴와 살륙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12-14]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므로, 13 멀리서 앞사귀 달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앞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14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와 참된 믿음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에게 120 년의 기한을 두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도 기한을 두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신 하나님은 때가 차게 되니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군대들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고 그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공활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생활에서는 그분의 도덕적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모든
위선적인 신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분의 징벌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5-7]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6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공활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7 내가 공활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징벌하기 보다는 은혜와 자비
베풀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잘못과 못된 태도를 보면서도 모른척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야 30:18]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공활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받게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선하신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22-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우신 판단의 행위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흉내
내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운 심령, 선한 마음과
행위,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과 절제,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주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번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자비와 인내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무엇보다
남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는 관대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